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26일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골키퍼 리처드 리의 육탄 공격에 막혀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설기현·이영표 동반 부진

박-후반 출전 득점 실패 설-공격 포인트 못 올려 이-후반 교체... 팀 완패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레딩 FC), 이영표(토트넘 핫스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코리안 3인방이 나란히 출격했지만 박지성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박지성은 26일 밤(이하 한국시간)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시즌 3차전 왓포드

드와 원정경기에서 2-1로 앞선 후반 14분 공격수 올레 군나르 솔샤르 대신 교체 출전해 측면 미드필더로 30여분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 3호' 설기현(27·레딩 FC)도 같은시간 JJB 스타디움에서 열린 위건 어슬레틱과 2006~2007 시즌 3차전에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후반 24분 스티븐 헌트와 교체될 때까지 69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골과 어시스트를 올리지 못했다.

이영표 역시 이날 화이트하드레인에서 벌

어진 에버튼과의 홈경기서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0-1로 뒤진 후반 15분 공격수 제미언 데포와 교체 아웃됐다.

이영표는 한 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전반 15분 케빈 킬반의 경고를 유도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후반 8분 수비수 칼럼 데브포트의 빠이픈 자책골에 이어 후반 21분 엔드류 존슨에게 두번째 골을 허용하며 0-2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금호고 추계 고교축구 우승

강릉농공고 1-0 제압 4년만에 전국대회 정상

김태영, 고종수 등을 배출한 호남 축구 명문 광주 금호고가 제42회 추계 한국고교축구연맹전에서 강릉농공고를 꺾고 4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금호고는 27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전반 15분 박성화

은 뒤 오른쪽 감속으로 네트를 갈라 강릉농공고를 1-0으로 제압했다.

1975년 축구부 창단 이후 국가대표 신연호, 김관근 등을 배출하며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금호고는 2002년 금석배 우승 이후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우수선수는 준결승 전주공고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금호와 포워드 이공기가 뽐냈고 김성구 금호와 코치가 지도상을 받았다. 득점상은 6골을 뽑은 경남공고 양세근에게 돌아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해선(남)·박경자(여) 우승 '스트라이크'

광주일보사 후원 제3회 벨인퍼컴사장배 남녀볼링대회

광주·전남 불려 1천여명 참가 지역 최고 볼링대회 자리매김

김해선(33·담양군 담양읍)씨가 광주일보사 후원 제3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녀볼링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선씨는 27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테니스클럽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1위를 기록한 뒤 1~2위순위에선 9프레임 동안 9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278점으로 우승을 차지해 훈련 보조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여자부에서는 결승전 4위로 순위전에 오른 박경자(47·광산구 우산동)씨가 결승전 1위를 차지한 정정아씨를 79점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역시 훈련보조금 150만원을 차지했다.

남자부 2위는 236점을 기록한 오길영씨가 차지했고, 192점을 기록한 이동운씨가 3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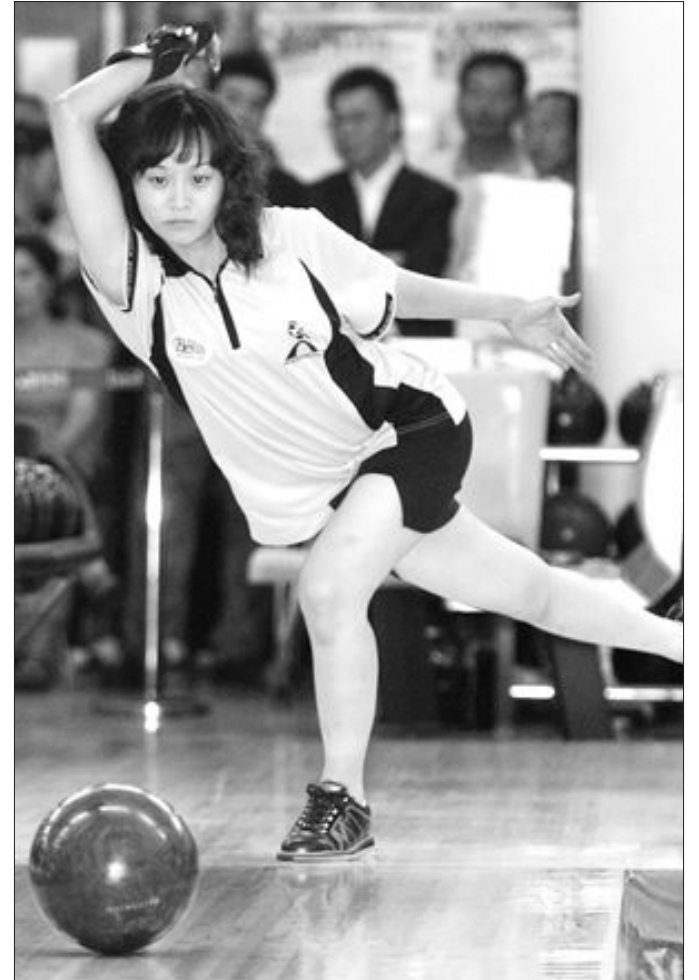
여자부에서는 정정아씨가 2위, 이진아씨가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순수 아마추어 볼링동호인 1천여명이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는 4위를 차지한 김금열(37)씨가 준결승에서 300점 만점인 퍼펙트를 기록하는 등 수준높은 기량을 과시하며 이 지역 최고의 볼링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남자부 3위를 기록한 이동운씨는 삼급 전역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임채원(5살)양을 돕는데 기탁했으며 우승자 김해선씨도 삼급 일부를 기탁하는 훈훈한 인정을 보였다.

조종국(45) 벨인퍼컴 사장은 "이번대회에 보여준 광주·전남 볼링 동호인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수상자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는 등 훈훈한 인정이 함께 해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7일 광주시 북구 테니스클럽에서 열린 광주일보사 후원 제3회 벨인퍼컴사장배남녀볼링대회 여자부 결승전에 출전한 정정아 선수가 힘찬 릴리스를 하고 있다. /녀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퍼펙트 우승 놓쳐 아쉽네요"

남자부 우승 김해선 선수



"300점 만점 퍼펙트 게임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우승하기까지는 끈 결흔한 여자친구가 큰 힘이 됐습니다"

우승자 김해선(33·담양군 담양읍)씨는 "1~2위 전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에서 10번째 핀이 남아 아쉽게 퍼펙트 게임을 놓쳤다"며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운동해 반드시 퍼펙트 게임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력 15년에 소속의 구질을 가진 김 씨는 예선 1위로 올라와 1~2위전에서 9번째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치는 등 기량이 동호인 수준을 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실력파. 해남에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김 씨는 일주일에 1~2회 광주에 올라와 테니스클럽에서 게임을 하고 내려 갈 정도의 볼링 매니아다. 김 씨는 "올 해 적은 금액이지만 몸이 아픈 채원 어린이를 도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우승이 됐다"며 "앞으로도 동호인들과 함께 이웃을 생각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년 볼리의 파워 보여줬죠"

여자부 우승 박경자 선수



젊은이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중년여성 볼리의 파워를 과시하며 우승한 박경자(47·광산구 우산동)씨는 예선에서 4위에 그쳤지만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간강관리를 위해 시작해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6년 구력에 14파운드의 볼을 쓰며 솜속 구질이 일품인 박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절치부심 올해 우승을 일었다.

1남 3녀, 초등학교까지 둔 주부로서 일주일에 1~2회 동호인 활동에 그친다는 박씨는 파워볼링을 구사해 핀 액션이 좋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예선 4위로 올라와 3~4위권이 가장 힘들었다는 박씨는 "젊은 선수들과 게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꾸준히 볼관리를 해 한갑이 넘어서도 볼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추천

28일(월)
▲메이저리그(시카고C-세인트루이스)
(08:55·Xsports)
▲미추홀기 고교야구(특수정보고-광주일고)(12:30·SBS스포츠)
▲KAL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 여자단체결승(14:00·MBC ESPN)
▲국제유소년축구 준결승(14:05·KBS 1)

강릉농공고 1-0 제압

4년만에 전국대회 정상

김태영, 고종수 등을 배출한 호남 축구 명문 광주 금호고가 제42회 추계 한국고교축구연맹전에서 강릉농공고를 꺾고 4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금호고는 27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전반 15분 박성화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단독 찬스를 잡

첨단월계공인증개사

☎(97)972-4585 현 011-604-6205
(월간지부 부영A LC빌딩 517호)

동림2지구

신축, 각종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정

금부부동산컨설팅

☎(42)261-8949 현 011-602-2233
(북구 우산A 문충초등학교 정문앞)

쌍방매매

북구 문충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남구 문충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북구 문충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남구 문충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북구 문충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남구 문충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매일부동산

☎011-613-3334 ☎(42)233-3372
(법원 경매법정 앞건물)

공장

·니주 칠현동 동야리
대742/간185 2억9천
·니주 칠현동 고동리
대430/간304 3억
·니주 오랑동 농공단지
내 대1536/간333
3억5천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062)573-0775 현 011-786-3311
(매곡동 빅마트 옆)

세값은 상가

·대 95평 건 142평 보증금 2억6천만 원 월510만 원
·대 8천 매매가 9억8천만
·대지 126평 건평 220평 1층~4층 보증금:6,600만 원 월280만원
·대지 200평 보증금:2억2천 매매:5억5천

정원공인중개사

☎(42) 227-3031
(현) 011-608-1101

본업소는
총장로·황금동
금남지하상가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분석·평가·분할·전매·전매·자산분석·자산중개
광주·전남권토지구방
Tel : 062973-9174, 016-757-8800

골프연습장

17억5천

옥션코리아 부동산컨설팅·정기유법부사

법원경매

☎ 222-8446 (법원경매입찰장 옆)

아파트	건물	최저가	최고가
신원동 신원1단지	4,600	3,220	
신원동 신원2단지	8,500	5,650	
신원동 신원3단지	7,500	5,250	
신원동 신원4단지	9,000	6,300	
신원동 신원5단지	9,800	6,860	
신원동 신원6단지	9,800	6,860	
신원동 신원7단지	194,000	9,800	
신원동 신원8단지	194,000	9,800	
신원동 신원9단지	194,000	9,800	
신원동 신원10단지	194,000	9,800	

첨단중심 상업지역

·정부지정상업지역 200평
·부영·호반@정문부근 145평, 185평

첨단 원룸 건물급매

·대72 건145 원룸15개 투룸3개
·쓰리룸1개 보1억1천만
·월480만 매매가 조정가

전원주택매매

·동원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남원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북원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남원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북원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남원동 2차지 4세대 48평 1200만원

모델

·북구 신안동 대112/
건362 2002년식
·북구 중동 대128/
건411 2002년식
·북구 중동 대128/
건411 2002년식
·북구 중동 대128/
건411 2002년식

시우나 및 모텔 빌딩

·대지 328평 건평 1,000평
보증금 3억3천8백만 원
·대지 260만 원
·대지 11억(연화 2.64%) 매매가 27억

임대 매매 전문중개업소입니다.

위치: 총장로2가(제일 은행에서 총장로 쪽 50m 3층)

첨단지구 상업용지

240평 270평 510평 567평 1100평 3000평 1000평 1111평 1155평 1800평 2500평

주유소

660평35억 600평16억

다거구(원룸)

건물	최저가	최고가
신원동 신원1단지	4,600	3,220
신원동 신원2단지	8,500	5,650
신원동 신원3단지	7,500	5,250
신원동 신원4단지	9,000	6,300
신원동 신원5단지	9,800	6,860
신원동 신원6단지	9,800	6,860
신원동 신원7단지	194,000	9,800
신원동 신원8단지	194,000	9,800
신원동 신원9단지	194,000	9,800
신원동 신원10단지	194,000	9,800